

## 李退溪 非哲理詩의 境界를 논함\*\*

전연 리우 (Ts'unyan Liu)\*

전통적인 漢詩의 규범은 현재까지도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다. 도덕 혹은 윤리적 의미에 주안점을 두는 어떤 이는 사회 민생에까지 관심을 가지기도 한다. 시인의 개성을 발휘하여 이를 드러내고자 하는 어떤 이는 修辭로 그 참됨을 세우고자 하여 性靈과 神悟가 시 속에 담겨 있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리고 字句의 공졸을 같고 다듬으며 前代의 업적을 모방하여 기교적으로 더욱 진실보한 경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어떤 이는 옛 것을 모방하지만 이에 얽매이지 않고 간혹 이를 넘어서 혁신적인 것에 그 뜻을 두기도 한다. 위의 세 가지는 얼핏 보면 비슷한 것도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보고 세밀히 논하자면, 古今을 통틀어 위대한 시인의 위대한 작품은 위의 세 가지를 겸비하거나 아울러 지니고 있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들 서로 간의 한계는 또한 지극히 모호하고 말이 많아 편중됨을 면하기 어렵다.

이퇴계(1501~1570, 이름은 滉)는 중국 朝代로 보면 明代 弘治(1488~1505)에서 隆慶(1567~1572)간에 생존하였다. 그가 활약했던 시대는 嘉靖(1522~1566) 隆慶代로, 詩壇에 있어서는 이른바 ‘後七子’<sup>1)</sup>가 흥성했던 때였는데, 퇴계가 당시 문학계의 각종 사조와 주장을

\*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명예교수

\*\* 퇴계학 연구소, 『퇴계학보』 제89호(1996) 게재논문

1) 中國文學史에 있어서 明代의 後七子라고 하면 李攀龍, 王世貞, 謝榛, 宗臣, 梁有譽, 徐中行, 吳國倫 등의 일곱 사람을 가리킨다. 상세한 것은 『中國文學史』나 『文學批評史』 등의 전문 서적을 보라. 그 범주를 보고자 한다면, 王世貞의 『藝苑卮言』과 『弇州山人四部稿』, 王世懋의 『藝圃擷餘』, 謝榛의 『四溟詩話』 같

접하지 않음이 없었음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퇴계는 70년간의 일생 동안 시의 창작이 특히 많았다. 한국문학에서 ‘時調’라고 하는 『陶山十二曲』과 『退溪先生文集·別集』 卷一에 실린 詞 「和松岡樂府三篇」<sup>2)</sup>을 제외하고도, 퇴계의 文集, 續集, 別集, 外集에 수록된 漢詩는 古體와 近體詩 도합 일천 수 이상이 되니 실로 전문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퇴계는 조선 시대의 중요한 理學家이므로, 학자들은 그의 詩作이 哲理性을 띠고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할 것이다. 실제로 그가 지은 작품 중에는 哲理詩가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지만, 나는 퇴계의 시 중에서 理學 사상과 관계 있는 일부분의 시를<sup>3)</sup> 제외하고도 기타 非哲理性의 여러 시들 중에도 일찍이 함축성 있고 渾厚하며, 문장의 기세가 웅장하고 문구가 세련된 것도<sup>4)</sup> 참으로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의 천박함을 헤아리지도 않고 이 한 편의 글을 지어 퇴계 시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 내고자 한다.

## I.

한시는 우리 동방문화만이 독특하게 지니고 있는 문체의 일종이다. 平仄과 對仗, 古體와 近體 같은 것은 모두 전통 한문학만이 독자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한국과 일본과 월남에까지 유포되어 영향을 미치

---

은 책들은 모두 계발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 2) 「武陵春」, 「憶秦娥」, 「點絳脣」 등 三闋은 『退溪全書』 第2冊(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1978) p.530을 보라. 본문에 인용한 退溪의 文集, 續集, 別集, 外集은 모두 이 全書 本을 사용하였다.
- 3) 讀者들은 杜松柏선생의 『退溪의 哲理詩(退溪의 寓理詩)』(『退溪學報』 第55輯, 서울, 1987, pp.29~38)라는 글을 참고할 수 있다.
- 4) 杜甫의 「敬贈鄭諫議十韻」에 “터럭만금도 남은 한이 없으나, 파란만장 속에서 홀로 노숙해졌네(毫髮無遺恨, 波瀾獨老成)”라고 하고 있는데, 前人들은 이를 “詩家の 傳燈衣鉢”이라 생각하였다. 薛雲의 『一瓢詩話』, 『昭代叢書』(道光本), 癸集萃編을 보라.

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한시의 各體와 英詩의 卍에지(poesie)를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경계와 형상에서 뿐만 아니라 양자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이미 고인이 된 근세의 번역가이자 영국 친구인 아서 웨일리(Arthur Waley)가 번역한 『중국어시 170首(170 Chinese Poems)』에는 상당히 긴 서문을 덧붙여 놓았는데, 웨일리는 그 차이점을 아래와 같이 관찰하고 있다.

중국의 哲理文學은 일찍이 공자의 전통주의와 장자의 허무주의 사이에서 하나의 중간 노선을 찾아내지 못했다. 심신상으로도 육체상으로도 중국인 대부분은 오랜 시간 동안 여전히 아무런 깊은 충동을 가지지 못했던 내륙의 촌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어떤 기이한 탐험이나 모험을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마찬가지로 그들의 선박도 어떤 신대륙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대다수의 歐美 사람들을 보고서 하는 말이지만, 그리스 아테네 식의 호기심에 찬 의문(Athenian questioning)이 드러낸 잠깐 동안의 섬광이 중국의 여러 세기 동안에 있어 왔던, 쉽사리 동의해 버리는 사고보다도 오히려 더욱 가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인이 일찍이 수 천년 동안 이성과 인내를 지닌 높은 문화 수준을 간직해 왔었는데, 그 높은 수준의 문화는 서양인으로 하여금 질시를 느끼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해야만 한다.

중국인들에게는 宗教禁書目錄(Index)이란 것도 없었고, 또한 종교심판(Inquisition)이나 십자군 전쟁도 없었다. 물론 중국인들에게 미신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歐美에서와 같이 그렇게 줄곧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의 제한 역시 중국 문학에 있어서는 사물을 반영한다는 면만 강조되었을 뿐이지, 사유나 추리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본고에서 번역하는 시 속에서는 이러한 특징도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白居易의 수많은 시 속에서는 섬세한 추리와 철학적 기묘함이 여전히 있으며, 이에 더하여 사물의 솔직한 반영과 자아 분석의 능력이 있으므로, 白居易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서양에는 오히려 없다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우리들은 사상에서 정감으로 관심을 옮기기로 한다. 서구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른 무엇보다 애정을 우선시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愛情詩’에서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개성이 침범당할 수 있는 곳이라면 다른 모든 시 속에서도 이와 같았다. 시인은 낭만(romantic) 정신을 가지고 곳곳에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시인은 자신을 독자인 당신의 애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중국 시인의 경향은 이와는 다르지만, 또한 비교할 수 있는 곳도 있다. 그는 결코 자신을 애인으로 보려 하지 않고, 자신을 친구로 삼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는 자신을 무한정 여유를 가진 사람(무한도의 여유란 바로 우리들이, 우리 친구들이 지니고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분장하거나, 또는 어떠한 세속적인 희망이나 야심(이러한 야심은 또 우정에 있어서는 가장 큰 장애물)을 가지지 않는 사람으로 분장한다. 그는 우리들이 자신을 편안한 반려자나 주량 좋은 술친구로 느껴 주기를 원한다. 그는 취하지 않고서는 돌아가지 않지만, 결코 주연을 베푸는 주인공의 체면을 잃게 하지는 않는다.

서구의 시인들에 대해 말하자면, 그들은 남녀 관계가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또한 극히 신비한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다만 하나의 일상적이고 보편적이며 또한 분명한 것이었다. 남녀 관계는 육체적 필요를 위한 것이지 정감의 만족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 정감상의 만족은 단순히 친구들에게 남겨 두었다.

허다한 이유로 인하여, 비록 중국 시인들은 육체와 정신 양면의 융합함을 강조하고 정상적인 여인에게 귀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특질을 강조하였지만, 白居易는 오히려 三峽을 들어갈 때 마음속으로 두려움을 느끼며 시를 쓰면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우리들의 시인들은 예술 작품에서 그려낸 형상과 똑같은 자신을 상상해 낸다. 모자도 쓰지 않은 맨머리에 눈을 둥그렇게 뜨고, 위에

걸친 속옷의 단추도 채우지 않은 채로, 만에 하나 정감이 폭발할 때마다 자신을 그렇게 질식시킬 수 있거나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중국 시인들은 자신을 부끄러움을 아는 은사로 생각하여 북쪽 창문 아래에서 『周易』을 읽거나, 도사와 함께 바둑을 두거나, 혹은 우연히 찾아온 손님과 함께 물가에서 글을 익힌다. 책방에서 책을 만들어 내려 할 때에도 전례에 따라 한 폭의 작가상을 필요로 한다. 그 초상에 그려진 작가라는 직업은 순결하고 점잖은 얼굴 모습을 한 바로 이러한 것으로, 공교롭게도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는 낫뜨거운 겉표지나 속표지와는 매우 대조가 된다.

애정을 이상화하여, 차라리 애정을 요구하지 우정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서구의 습관이었다. 이와 같은 점이 남녀 관계에 과도한 부담을 가중시켰다. 중국인들의 과실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인데, 언제나 그들의 처첩을 겨우 生育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다만 친구들을 통해 우정과 위안과 지식을 갈고 닦는 동료를 찾을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자들과 남편 사이의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는 친구들과의 사이에 있어서는 오히려 없다. 친구들은 나뉘고는 쭉대와 같이 조만간에 다른 지방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변세 지방으로 출정하기도 하며, 관리로 임명되어 먼 지방으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도 하였다. 내가 만약 漢詩의 제재 태반이 이별 혹은 별리의 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마도 너무 지나친 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경제적인 필요성이 중국 시인들을 관료 제도라는 그물 속에 몰아 넣었고, 그리하여 시인들은 관리로 임명되는 것도 바로 유가의 깨우침을 위한 것이라고 고무되었다는 것이다. 자연히 논밭을 소유하는 것, 또한 은퇴하여 돌아와 농부가 되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었지만, 농촌 생활은 힘들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인들은 일반적으로 모두 세 과정의 생존 단계를 거쳐야 한다. 첫 번째 단계는 그가 수도에 있으면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습작을 하고, 한담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약간의 공문서를 수고롭게 쓰기도 하는데, 영국의 페피스(Samuel Pepys)가 해군 본부에 몸담고 있었던 상황과 별차이가 없다.<sup>5)</sup> 그 다음 단계는 만약에 그가 조정에서 총애를 잃고 지방관으로 유배되었다면, 아마 그가 교제를 원했던 친구들과는 수천 리의 거리가 있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그가 만약 약간의 저축을 했다면 남자를 찾고 있는 몇 명의 여자를 위하여 돈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작은 전원 주택으로 은퇴하여 그가 찾을 수 있는 아직도 살아 있는 몇몇 옛 친구를 모아서, 그들이 즐겁게 모여 유쾌하게 놀았던 젊은 시절의 옛 꿈을 다시 한 번 떠올릴 것이다.<sup>6)</sup>

웨일리의 이 말은 대체로 한 서양 학자의 관점으로 고대 사회를 자세히 본 것이므로 전적으로 타당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묘사의 뛰어난 우리 같은 동양인의 전통으로 보더라도 또한 약간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으니, 대체로 동서양 사회 생활의 거리감과 습속의 차이는 진실로 이와 같이 크다고 하겠다. 그러나 만약 고대의 생활 환경과 시인의 마음가짐으로 이야기하자면, 또한 웨일리 선생의 객관성은 고대 시인 본래의 더욱 직접적인 서술만은 못한 것이다. 우리가 전통 속에서의 한시 작가를 보았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방향과 자아 편달을 생각해 보자. 그렇다면 그들은 결국 어떤 성격의 저술을 하였을까? 웨일리는 일찍이 『백거이의 생애와 시대(白居易之生涯及時代)』<sup>7)</sup>라는 책을 저술하였지

5) 사무엘 페피스(Samuel Pepys, 1633~1703) : 영국 문인이며 海軍 행정관 리. 그가 쓴 『日記(Diary)』는 매우 유명하다. 차알스 2세(Charles 2)시대의 런던 생활을 기록하고 있는데 매우 정취가 있다. 본래는 속기체로 기록하여 방대한 양이지만, 후에 독자들을 위해 다시 증인되어 나왔으며, 또한 축약본도 있다.

6) Arthur Waley, 『170 Chinese Poems』 Constable, London 1943, pp.3~6. 비록 웨일리의 글은 오늘날의 중국 현실 사회를 충분히 그려내지 못하였으며, 4500년 전의 상황을 이야기하더라도 또한 착오가 있다. 그러나 古代를 논한 것은 오히려 그 윤곽을 대체로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만, 지금은 『白氏長慶集』 권28에 실린 「원진에게 주는 편지(與元九書)」에서 언급한 말로서, 고대 시인의 포부를 잠시 엿볼 수 있다.

國風이 변하여 『離騷』의 辭가 되었고, 오언시는 蘇軾과 李陵에게서 시작되었다. 소식과 이릉과 『離騷』 계통의 사람들은 모두 때를 만나지 못한 자들이 각각 그 뜻을 엮어내어 문장으로 펼쳐 낸 것이다. 그러므로 河梁의 句는 이별을 애닦아하는 것에서 그치고, 澤畔의 읊조림은 원망스런 생각으로 귀착되는 것이다. 방황하고 억울해 하다 보니 다른 것에는 돌릴 겨를이 없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詩經』과 멀리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뼈대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리하여 이별을 기탁하여서는 물오리 한 쌍과 외기러기를 끌어와 비유하였고, 君子와 小人을 풍자하여서는 향초와 나쁜 새를 끌어와 비유하였다. 비록 의미와 부류는 다 갖추지 못했지만, 오히려 시경을 지은 시인의 작품의 10분의 2·3은 얻을 수 있었다. 이후부터 『詩經』의 六義가 비로소 결핍되기 시작하였다. 晉·宋 이래로 『詩經』의 본의를 얻은 자는 거의 드물었으니, 謝靈運은 심오함과 연박함은 있었지만 山水에 탐닉한 것이 많았고, 도연명은 고결함과 고아함을 보였으나 오로지 전원만을 시로 읊조렸다. 江淹과 鮑照의 무리들은 이들 보다도 더욱 좁았다...이로부터 六義는 점점 사라져 갔다. 퇴폐하여 梁과 陳대에 이르면서 모두들 風雪을 조롱하거나 花草를 희롱하는 것을 넘어서지 못할 따름이었다. 아! 풍설과 화초와 같은 사물을 『시경』에서도 어찌 내버려두기야 했겠으랴? 다만 사용된 것이 어떠하였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가령 “북풍이 차가움이여”라고 읊은 것은 바람을 빌려서 무서운 학정을 풍자한 것이고, “눈이 펼 펼 흩날리네”라고 읊은 것은 눈으로 정벌과 부역을 민망히 여긴 것이며, “산앵도 나무의 꽃이여”라고 읊은 것은 꽃을 보고 느낀 바가 있는 것으로 형제를 풍자한 것이며, “캐세 캐세 질경이를”라고 읊은 것은 풀을 찬미하며 자식이 있음을 즐거워한 것이다. 모두 사물에서 감흥이 일어나서, 그 의미가 거기에 귀착되는 것이다. 이에 어긋나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으랴?<sup>8)</sup>

7) Arthur Waley, 『The Life and Times of Po Chu-i』 New York, Macmillan, 1949

8) 이 절에서 白樂天이 인용한 『詩經』의 句는 순서대로 『邶風·北風』, 『小雅·采薇』, 『小雅·裳棣』, 그리고 『周南·采芣苢』의 한 구절이다.

백거이의 문장 중에는 또 杜甫의 “붉은 대문 안에는 술과 안주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길에는 얼어 죽은 사람의 유골이 널려 있네”라는 시구를<sup>9)</sup> 크게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 때문인가? 맹자가 “禹와 稷과 顔回는 같은 도를 지닌 이들이다”(『孟子·離婁下』)라고 말한 것은 대개가 자신이 배고프고 자신이 물에 빠졌다는 정신이며, 이천 여년을 내려오는 중국 유가의 고귀한 전통을 위하여 글읽는 지식인들의 사상이 기탁된 것이다. 시인의 회포 또한 이와 같지 않음이 없으니, 갑작스레 음풍농월하고 초목을 읊조리는 것으로는 이와 같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갑작스레 봉건 제왕 시대에 입안 가득히 왕을 칭송하는 말에는 風雅를 읊조리는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나는 일찍이 퇴계가 지은 여러 시중에서 때를 느끼며 시대를 애닦아 하거나, 시대의 어려움을 도울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는 구들을 연구한 적이 있는데, 이러한 시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丙申年(1536)에 지은 『봄의 느낌(感春)』이라는 시에서, “삼 년 동안 수도에 살며 봄을 맞았는데, 답답하기가 멍에에 매인 망아지 같구나. 어영부영 결국 무슨 이익이 있었단고, 밤낮으로 나라의 은혜에 부끄러워하노라.”(『퇴계先生文集』 卷1 全書 第1冊, p.47)와 「세월에 고향에서 온 편지를 얻어 보고 느낀 감회를 쓰다(歲季得鄉書書懷)」에서는 “덧없는 세월이라 멈출 수 없어, 어느덧 시간은 선달 그믐 다 되었네. 나그네 침상에서 근심도 많아, 꿈과 혼백이 문득 멀리 날아가네. 이내 몸을 돌아보면 진실로 부끄러우니, 나라에 보답하는 것 역시 모자랄 뿐이네.”(全書

9) 杜甫의 「京師에서 奉先縣으로 가는 길에 느낀 감회를 五百字로 읊다(自京赴奉先縣詠懷五百字)」라는 시중의 유명한 구절로, 대개 『孟子·梁惠王上』의 “주방에는 살찐 고기가 가득하고, 마굿간에는 살찐 말들이 가득하나,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완연하며, 들뜬 곳에서 굶주려 죽은 시체가 가득하다”라는 구절을 시로 읊은 것이다. \* 이 논문에 실린 退溪詩번역은 『국역퇴계시』(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역 총서 90-1·2, 1990)와 『退溪全書』(退溪學譯注叢書, 社團法人 退溪學研究院)를 참고하였다. 본고에 인용된 ‘月夕’은 「感春」詩 원문에는 ‘日夕’으로 되어 있다.

第1冊, p.48)와 「밤에 일어나 느낌을 쓰다(夜起有感)」에서는 “십 년 동안의 나라 은혜가 산보다 무거운데, 일생토록 병만 많아 끝내 이룬 것 하나 없네”(全書 第1冊, p.58)와 「동재 감사 절구 10수(東齋感事十絶)」 중 셋째 수에서는 “시인의 말이 맛이 있음을 비로소 알겠으니, 온 강에 떠오른 밝은 달에도 임금의 은혜임을 알겠네.”(卷三, 全書 第1冊, p.98) 등과 같은 것이다. 대체로 이와 같은 사려는 우리들이 知人論世 함에 있어서 그 대부분이 제왕 시대의 분위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만은 없는 것이니, 어찌 그 말이 임금을 칭송하여 체득하였다거나 혹은 병도 없으면서 신음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퇴계의 「겨울날에 비가 몹시 내리더니 이윽고 큰 눈이 내리므로 기쁨에 짓다(冬日甚雨已而大雪喜而有作)」는 다음과 같다.

요 근래는 춥고 더움이 괴롭게도 항상 같지 않는데,  
 흉년과 전염병에 백성들은 아우성이네.  
 썩어빠진 유생은 대책도 없이 부질없게 걱정만 많은데,  
 임금님의 노심초사는 정성이 높은 해를 꿰뚫네.(卷1, 全書 第1, p.65)

내가 생각하건대 ‘精貫高’는 진실로 임금을 찬송하는 말이지만, 柳道源 선생이 찬한 『退溪先生文集考證』卷1(全書 第4冊, p.450)에는 주를 달아 놓지 않았다. 『三國志·魏書·武帝紀』의 建安 18년에 한나라 獻帝가 曹操를 魏公으로 삼는다는 策文에서 “그대는 큰 절개를 지니고 있고, 정성은 흰 해를 꿰뚫는 것 같네(君持大節, 精貫白日)”라 하고 있는 것이 그 출전이다. 그러나 퇴계가 이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用意는 오히려 生民에 있다고 하겠다. 나는 여기서 두 수의 시를 더 인용하여 퇴계가 지니고 있는 우국애민의 흥회를 보이려고 한다. 「蓮臺의 달밤(蓮臺月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하늘 나라의 眞인이 아랫 땅을 다스리는데,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민망히 여기지 않나.(卷3, 全書 第1冊, p.124)

퇴계는 스스로 “이 때 오래도록 한발이 들었다(時久旱)”라고 주를 달아 놓았다. 『大雅·雲漢』에서도 또한 큰 가뭄이 있었던 해를 “하늘을 우러러보니, 밝은 그 별이로다”라고 하여 비가 내릴 조짐이 없음을 말하고 있다. 문집 권4의 「黃魚」에서는 스스로 주를 달아 “속담에 ‘황어가 많이 올라오면 한발의 조짐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낙동강 물 봄바람에 눈 녹은 물결 많이 일어날 때,  
 黃魚가 힘차게 뛰어 앞다투어 그물을 치네.  
 흉년이 드는 것이 만약 이 생선 올라온 까닭이라 믿는다면,  
 한 사람 배 부르려고 어찌하여 백 명을 굶주릴 수 있으리.(全書 第一冊, p.135)

퇴계의 문집에는 白樂天의 詩에 和韻한 시도 있다.<sup>10)</sup> 퇴계의 마음에도 백낙천이 「與元九書」에서 하늘을 슬퍼하고 백성을 민망히 여겼던 것과 같은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황제가 전제정치로 통치하던 시대의 지식인들에게 이 같은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는 시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일 것이다.

## II.

10) 「和白樂天眼漸昏昏耳漸聾」, 甲子(1564)년 지음(文集 卷3, 全書 第1冊, p. 122), 또 別集 卷1 「養生絕句次古人韻示景霖」 第2首에 “樂天歌罷一傷神, 四十七年嬰病身. 大藥長繩如可試, 何人不見海生塵”라고 하고 있고, 原注에는 “나는 금년이 47세 인데, 白居易가 「浩歌行」에서 ‘나도 모르게 나이가 47세가 되었네’라고 하였던 바로 그 때이다”라고 하고 있다.(全書 第2冊, p.514) 대개 丁未(1547)년에 지은 것이다. 權五鳳 박사의 『退溪家年表編述』4, 『退溪學報』 第53輯, 1987, pp.98~99를 참고하라.

앞 절에서 웨일리의 글을 소개하며 哲理文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Philosophic Literature를 번역한 것이다. 그 개념은 대체로 유가와 도가를 포함하고 名家와 法家を 겸비한 것으로, 先秦諸家の 哲理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저작을 이야기한 것이다. 淸初의 葉燮은 『原詩』에서 “理와 事와 情이라는 것, 이 세 가지는 수만 가지의 끝없는 변태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 대개 형형색색의 음성과 모습은 대부분 이것을 넘어설 수 없다”라고 하였다.<sup>11)</sup> 이것은 대체로 詩體는 이 세 가지를 마땅히 지니고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 가지만 독립되어 나머지 둘을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禪宗과 語錄이 크게 흥성한 후부터는 시를 짓는 것이 偈語와 같아져 배우는 자들에게 깊은 깨달음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고, 理學家 또한 이 일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시를 짓는 것이 說話와 같아지고 說理는 문장의 韻句와 같아져 크게 성행하였다. 그리하여 이학가가 아닌 왕안석(荊公)과 黃庭堅(山谷) 같은 이들이 豐干과 拾得과 王梵志의 문체를 본받아 지은 시들도 거의 이학가들이 지은 여러 작품들과 비슷하였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학가들의 이와 같은 형식의 시들은 바로 시의 체제를 사용하여 理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 理는 언제나 세상을 초월하여 다시 한 단계를 더 오르는 철학의 理이거나 玄學의 理였으며, 世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간혹 세상의 정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었지만 설교의 분위기가 강하고 經筵의 기분이 농후하여, 이 또한 哲理 散文의 토론과 흡사하였다. 간혹 시사적인 것이 있으면서 정이 없는 것도 있고, 간혹 이치가 깊으면서 정이 담담하기도 하여, 세상에서의 희노애락이나 이합집산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 이는 마치 두보 시의 “오늘 밤 鄜州의 달을 閩中에서 나 홀로 보네”(「月夜」)에서 지니고 있는 의경과도 같은 것이었다.(이학가 이외에 고승이나 대학자나 법사들도 스스로 시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있었다. 그 시들이 만약 정이 녹아

11) 『昭代叢書』本, 癸集廣編補. 최근에 출판된 것으로는 『原詩』와 『一瓢詩話』와 沈德潛의 『說詩晬語』 세 가지가 합간된 것이 있다. 北京, 1979, p.23

들어 理와 섞여 있고 말이 근사하며 의미가 심원하여서, 그것이 전적으로 불교의 棒喝語나 도교의 齋醮詞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역시 진실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생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가 엄숙한 이학자들 중에는 간혹 시 짓는 것을 정통으로 여기지 않는 자도 있었으니, 程頤(伊川)는 「朱長文에게 답하는 편지(答朱長文書)」(『伊川文集』 卷5)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번에 그대가 文과 詩를 많이 짓지 않는다고 한 것은, 단지 心氣를 상하게 하기 때문이 아니라, 겨우 가볍게 짓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음을 따릅니다. 성현들이 문장을 지은 것은 부득이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이치가 명확하다는 것이었고, 성인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은 천하의 이치에 모자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보습과 같은 농기구나 도자기와 같은 그릇이 계속하여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에 부족함이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비록 성인들이 말씀을 그만두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책을 들고서부터 문장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여, 평생토록 문장을 지은 것이 문득 성인들 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있다고 한들 도움이 될 것도 없고, 없다고 한들 부족할 것도 없으니 모두가 소용없는 군더더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을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을 얻지도 못했으니, 진실에서 벗어나고 옳음을 잃어버렸으므로 오히려 도에 해로운 것이 분명합니다.

程頤는 『語錄』에서 “문장을 짓는 것이 道에 해롭다(作文害道)”는 이론을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무릇 문장을 지움에 뜻을 전일하게 하지 않으면 공교롭지 못하지만, 만약 뜻을 전일하게 한다면 뜻이 여기에만 국한되어 버리니 또한 어찌 천지와 더불어 그 거대함을 함께 할 수 있겠는가? 『書經』에 ‘翫物喪志’<sup>12)</sup>

12) 『尙書·旅獒』에 보인다. 西周初에 西戎의 먼 나라에서 큰 개를 현상하였을 때

라는 말이 있는데, 문장을 짓는 것 또한 翫物인 것이다. 呂與叔<sup>13)</sup>이 지은 시에 “학문은 杜預와 같이 마침내 버릇이 되어 버렸고, 문장은 司馬相如와 같이 배우와 같은 부류가 되었네. 홀로 공자의 문하에서 한 가지 일도 이론 게 없으니, 다만 顏淵에게 나아가 心齋를 얻고자 하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는 매우 묘하다. 옛날의 학자들은 오로지 性情 기르기에 힘썼을 뿐, 다른 것은 공부하지 않았다. 지금 문장을 짓는 이들은 오로지 章句 다듬는 것에 만 힘을 써 남의 이목만을 즐겁게 하려 한다. 이미 남을 즐겁게 하는 것에 힘을 쓴다면 배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二程遺書』 卷18)

楊雄은 司馬相如가 지은 「大人賦」를 보고 흡사 배우가 하는 짓이나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漢書·楊雄傳』에 보인다. 杜預는 『左傳』을 너무 좋아하는 성격이 있었는데 이는 『晉書·杜預傳』에 보인다. 그러나 顏子の 心齋(마음의 재계)에 대한 말은 실제로 『莊子·人間世』에 나오는 것이다. 伊川이 감상하기에 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도 모두 거두어 모아 놓았다는 것이다. 지금 程頤의 중지를 기준으로 퇴계의 理學詩를 간략히 논한 후에 다시 非哲理詩를 언급한다면, 이 두 가지를 또한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理學詩는 반드시 공자 문하의 여러 성현을 언급하여야 하는데, 일찍이 공자께서도 “너희들 어찌하여 『詩經』을 배우지 않느냐”(『論語·陽貨』)라고 이야기하였다. 퇴계의 여러 시구 중에 「권생호문의 시에 차운하다(次權生好文)」(癸亥, 1563년 지음)에서는 “시 공부가 도를 배우는데 방해된다고 말하지 말라. 성인 문하의 자하와 자공도 또한 시를 말하였으니”(卷3 全書 第1冊, p.119)라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이러한

---

召公이 경계하는 문장을 지었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이것은 가짜 「古文尙書」 중의 한편으로, 자구는 「盤庚」, 「國語·魯語」, 「左傳·僖公五年」에서 「書經」을 인용한 문장을 많이 답습하였다. 그러나 ‘翫物喪志’라는 말은 오늘날에 이미 도덕상의 일상 용어가 되었다.

- 13) 呂與叔은 呂大臨을 가리킨다. 大臨은 처음에 張橫渠(載)를 따랐다가 張橫渠가 죽자 또 二程을 만나 도움을 청하였다. 『宋史』 卷340, 『宋元學案』 卷31을 참고하라. 여기에서 程伊川이 인용한 呂大臨의 시는 『宋元學案』에도 채록되어 있다.

의미를 더욱 발휘한 것이다. 「김언우에게 보이다(示金彦遇)」(卷5, 全書 第1冊, p.157)에서는 ‘子思와 曾點’을 거론하였고, 「김돈서에 보이다(示金惇叙)」(外集, 卷1, 全書 第2冊, p.546)에서 “증점이 즐긴 경지 쫓기 어려워 또한 顏淵을 배우네”라 한 것은 공자의 제자를 모범으로 삼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월 사일 월란암에 노닐며 두 수를 짓다(十月四日遊月瀾菴二首)」 중의 둘째 수(卷2, 全書 第1冊, p.88)에서 “程伯子は 뒷날에 사냥 버릇 경계하였고, 朱文公은 젊었을 때 종소리를 증험하였네”라고 하고, 「황중거의 원일시에 차운하다(次董仲舉元日韻)」(丙辰, 1556년작)에서 “上蔡의 말을 들었다면 名利關을 벗어났을 것이요, 배움의 힘이었다는 정이천의 말을 증험할 수 있으려네”(同上, p.89)라고 하였으니, 이학가의 이러한 사적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익히 들은 바가 많지 않거나 익숙해지기 쉽지 않은 것들이다.<sup>14)</sup> 그러나 이는 여러 이학가들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말일 따름이므로, 퇴계 理學詩의 조예가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보기에는 충분한 것이 아니다.

퇴계는 海東朱子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는 考亭(福建省의 지명으로 주희가 살던 곳)에 대한 퇴계의 옹호와 숭배가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신령의 고을 원님 황중거에게 차운하여 답하다(次韻答新寧宰黃仲舉)」(卷2, 全書 第1冊, p.87)에서는 “簡策은 술찌꺼기라고 어느 누가 말하였던가? 이 일은 모름지기 紫陽(주자)에게 물어 보아야 하네”라고 하였고, 「금문원이 시를 보내 왔으므로 차운하다(次韻琴聞遠見寄)」(卷2, 全書 第1冊, p.136)에서는 “근자에 듣자 하니 그대도 역시 주자의 책을 읽는다는데, 깊은 근원 더듬어 참 이치를 맛보는 지”라고 하였으니, 모두 주자에 대해 존경하고 흠모하고 경건해 함을 볼 수 있다. 續集 卷2의 「조카 고가 근래에 『家禮』·『小學』·『大學或問』을 읽고 시 세수를 보내 왔는데, 그 말이 감동하게 하는 바 있어 그

14) 이것은 현재의 우리 같은 사람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며, 退溪 門下나 그 당시의 諸賢들은 이러한 점이 없었다. 伯子와 文公은 程顥와 朱熹를 지칭하는 말이며, 上蔡는 謝良佐이다. 『宋元學案』 卷24는 『上蔡學案』이다.

운을 써서 나의 생각을 보인다(교姪近讀家禮小學大學或問, 以詩三首來, 其言若有所感者, 用其韻示意云)」(全書 第3冊, p.44)라는 칠언절구 三首에서는 매 수마다 주자가 지은 책 한 권을 읊고 있으며, 아울러 자신의 조카에게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않으리라”라고 고무하고 있다. 丙寅年(1566)에 퇴계가 지은 「사순·경선과 함께 『계몽』을 논하다(士純景善論啓蒙)」라는 칠언절구 한 수는(文集 卷4, 全書 第1冊, p.131) 바로 주자의 『역학계몽』이란 책을 언급하면서도, 지나친 도학적인 맛은 없는 것이다.

동풍이 아직도 북풍과 같이 사나워서,  
고요히 문을 닫고 앉아 화로 연기 대하고 있네.  
두 사람 함께 와서 옛 학문을 토론하니,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유익함에 기쁘기만 하네.

시 전체적으로 표면상 『주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이 없지만, 사실 ‘新益’이란 이 말은 雙關語이다. ‘益’은 손익의 ‘益’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益’은 또 『주역』 卦의 하나로서 그 象辭는 “益은 움직임이 이 이치에 따르므로 날로 전진함이 끝이 없다”고 하거나, 또 “무릇 益의 도리는 때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것이다”라 하고 있다. 이 때는 마침 丙寅年 새해였으므로 ‘舊學’이란 말과 ‘新益’이란 말이 서로 상대되고 있다. 益에는 또 두 사람이 와서 의론하는 책이 『계몽』이란 사실도 본 시의 제목에서 조금 드러나 있다. 또 「동재 감사 절구 열 수(東齋感事十絶)」의 일곱째 수(卷3, 全書 第1冊, p.98)는 다음과 같다.

벽에 가득한 도서에서 한 가닥 향기가 피어나는데,  
새벽 창에 몰아치는 눈보라는 등잔불 너머 있네.  
가는 글자는 어두운 눈에 해롭다는 것 잘 알고 있어서,  
夜氣章에 마음 두고 명칭스레 앉았다오.

또 같은 卷의 「임거 십오영(林居十五詠)」의 「마음을 보다(觀心)」(全

書 第1冊, p.99)라는 시는 다음과 같다.

고요함 속에 敬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단정히 하는 것일 뿐이니,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을 한다면 이는 마음이 둘이란 것이네.  
李延平 찾아가서 이 뜻을 궁구하고 싶지만,  
맑은 병의 가을달인 듯 아득하여 찾을 수가 없어라.<sup>15)</sup>

이 두 절구에서의 夜氣라는 句는 『孟子·告子上』의 “牛山の 나무는 일찍이 아름다웠다”라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延平先生 李侗은 주자의 스승으로서 그의 학설은 『延平答問』에 많이 보인다. 위의 두 수는 모두 순수한 理學詩로, 진실로 入理가 매우 높으면서도 시로서도 아주 뛰어난 수작이다. 퇴계는 程朱一派를 좋아하였기 때문에 육상산과 왕양명을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續集 卷2에는 칠언절구 일곱 수가 있는데, 각각 南軒(張栻), 東萊(呂祖謙), 西山(眞德秀), 象山(陸九淵), 許順之(升), 龍川(陳亮), 梅巖(胡次焱) 등의 諸人을 (全書 第3冊, pp.36~37) 읊고 있다. 順之는 朱文公의 제자로 『朱子語類』의 문답에 나오는 順之가 바로 그 사람으로, 朱文公이 主簿가 되어 同安에 오자 13살의 어린 나이에 가장 먼저 주자를 따라 노닐었다. 梅巖은 咸淳(1265~1274) 년간에 진사가 되어 貴池縣尉로 있다가 縣이 元에 함락되자 縣을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왔던 이로 또한 호걸지사였다. 그 나머지 다섯 사람은 모두 大儒였다는 것은 더 이상 논할 것도 없다. 別集 卷2의 「한사형(윤명)이 천마산에 들어가 독서를 하면서 나의 못난 필적을 시한 첩으로 지냈기에 우연히 느낀 바를 써서 주다(韓士炯(胤明)往大磨山讀書留一帖求拙跡偶書所感寄贈)」라는 칠언절구 여러 시들은 明代 諸家の 理學 저술들, 예를 들면 薛文清(瑄)의 『讀書錄』·陳白沙(獻章)의 『詩教』·賀醫閻(欽)의 『醫閻先生集』, 그리고 왕양명의 『傳習錄』·나흠순의 『困知記』 등의 책들을 나누어 논하고 있다. 어떤 시에서는 양명과

15) 全書 第2冊, p.531 「韓士炯(胤明)往天磨山讀書留一帖求拙跡偶書所感寄贈」의 第5首에 『延平答問』을 읊고 있는데, 이 시 역시 “가을달과 옥병의 얼음처럼 맑고 밝아 속까지 보이네(秋月冰壺徹底清)”이란 句가 있다. 함께 참고할 만하다.

흠순의 관계를 일컫고 있다.

왕양명의 사악한 학설이 극도로 흘러 넘치자,  
힘써 막은 羅公(欽順)에게도 남 모르는 걱정 있었네.(全書 第2冊,  
p.532)

이 시와 文集 卷2의 「한거하면서 조사경, 구경서, 김순거, 권경수 등 여러 사람들과 화창한 시에 차운한 열 네 수(閒居次趙士敬·具景瑞·金舜學·權景受諸人唱酬韻十四首)」 중 일곱째 수(全書 第1冊, p.75)에서는 “휩쓸리는 陸九淵의 禪學을 주자께서 물리치시니, 천하 사람 모두가 劉邦을 위해 左祖를 하는 것과 흡사하네. 말단 학자의 입에서도 性理가 오르내리니, 吳草廬(吳澄)는 그 당시에 시름이 짙었다네”라고 하였으니, 모두 육상산과 왕양명을 배척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퇴계가 釋家와 道家를 배척한 것이 일찍이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앞의 시 마지막 한 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性理諸家解』라는 책과 『皇極經世釋義』의 주석이다,  
鮑雲龍과 鮑寧庭의 『天原發微』같은 책들을 다시 논하여 새겼다네.  
내 이러한 기이한 책 늦게 얻어 봄을 한탄하며,  
그들이 남긴 책 어루만질 때마다 한 번씩 탄식하네.(全書 第1冊,  
p.75)

스스로 小跋로 주를 달아 “위의 시는 『性理諸家解』·『皇極經世釋義』·『天原發微』에 대해 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흡사 闡釋을 대하는 것 같다. 『性理諸家解』라는 책은 『退溪先生文集考證』 卷8(全書 第4冊, p.600)에서 “아마도 『性理群書解』인 것 같다”라고 하였으나, 그 상세한 것은 말하지 않았다. 내가 한국의 『中央圖書館古書目錄』 第1冊(1970)을 찾아 보니, 宋의 熊剛大가 集解한 『性理群書』가 있었는데, 明의 吳訥이 補注하였다. 간행 연대는 미상이지만 오로지 成化 己亥(1479)년의 「重刊補注序」가 있었다. 책은 모두 14권 4책인데, 중앙도

서관에서는 李朝 成宗 년간에 복각한 明本(p.32)으로 추정하였으니, 아마도 이 책이 맞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판각본은 『新編音點性理群書』라고 제목한 것으로 明의 熊剛大가 編한 9권 1책의 것인데, 이 또한 책을 간행한 연월(p.31)이 없었다. 熊剛大는 남송 때의 사람으로 明代人이 아니다. 남송대에 熊節이 지은 『性理群書句解』 23권이 있는데 熊剛大가 여기에 注를 달았다. 熊節은 주희의 제자이며, 熊剛大는 일찍이 蔡淵과 黃榦을 따라 교유하였다. 이 책은 『四庫全書』에 들어 있는데, 지금 『四庫全書』가 영인되어 있으므로 한국본과 서로 대조할 수 있다. 오직 이 책이 퇴계가 언급한 『性理諸家』인지의 여부는 더 많은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皇極經世釋義』는 『퇴계先生文集考證』에 아무런 주가 없다. 나는 이것이 아마도 余本이 지은 『皇極經世觀物外篇釋義』 4권이 아닌가 하는데, 이 책은 지금 『四明叢書』 제4집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이 또한 검토가 가능하다. 퇴계가 말한 『天原』 二鮑는 鮑元龍의 『天原發微』와 鮑霽의 『辨正』을 가리킨다. 鮑元龍은 宋末 元初에 살았던 사람이고 鮑霽은 明初사람이다. 『天原發微』는 術數類의 책으로 지금 『四庫全書』本 5권과 『道藏』本 855~859까지의 『發微』 18권이 있다. 퇴계의 말에 奇書を 본 것이 늦음을 한스러워 한 것이 있는데, 사실 옛날에는 그 책이 중국에 있었으므로 보편적으로 유전되지 못했을 것이다.

나는 앞에서 퇴계가 釋·老 二家를 공격한 것이 육구연·왕양명의 학을 배척한 것보다 격렬하지 못하다고 했는데, 실로 그러하다. 그의 사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퇴계는 비록 유교를 위주로 하지만 불교와 도교에 있어서도 관용적인 언급이 있어 明代 유학자 曹月川(端)이나 何柏齋(塘) 등과 같이 성이나서 칼을 뽑고 활을 당기는 엄한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다. 문집 卷3의 「호서 감사 민경열에게 부친 두 수(寄湖南監司閔景說二首)」(원문에는 湖南監司가 아니라 湖西監司로 되어 있다) 중의 둘째(全書 제1책, p.115)에서는 다음과 같이 읊고 있다.

봉산에 있을 때에 옛 신선 사모하였던 것 생각해 보니,  
그대 홀로 나와 함께 수련하기를 기약하였네.

술 안의 용과 호랑이는 공이 빠르지 않으며,  
 병 속의 천지도 일은 역시 변화가 있네.  
 가을에 비치는 서리 같은 흰머리는 내가 어찌 하리요,  
 들판 구름에 觀物하는 자네는 유유자적하네.  
 道家書의 묵은 비결은 응당 탈이 없었을 텐데,  
 무슨 마음에 그 노력을 늙어서야 그만두었는가.

宋·明의 理學書를 읽으면서, 북송 이후로 이학을 강의한 자들은 모두들 여전히 불교와 도교 두 종교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나는 퇴계에게 있어도 그러하다는 것을 알았다. 여기에서 인용한 시는 ‘觀物’이란 한 가지 점을 제외한다면 이학과는 그렇게 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오직 시적인 면만을 말한다면 이 시의 聲調와 격률은 진실로 큰 소리로 울려 퍼지는 훌륭한 것이다.

### III.

퇴계의 非哲理詩의 수량은 哲理詩보다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묘사 범위 또한 지극히 광범위하여, 哲理詩가 단지 협소하게 名理라는 것을 담론하는 것과는 다르다. 哲理詩와 유사한 제목인 「호숫가 원정에 우연히 나가 강절의 체를 본받다(湖上園亭偶出效康節體)」(文集 卷1, 全書 第1冊, p.51)를 볼 것 같으면, 그 내용을 읽어볼 때 『伊川擊壤集』 중의 閒適 일파의 작품과 근사하지만, 邵雍의 「安樂窩中吟」 혹은 「四道吟」과는 자못 다르다.<sup>16)</sup>

16) 「安樂窩中吟」은 『伊川擊壤集』 卷10과 『道藏』721, pp.14~16에 수록되어 있다. 「四道吟」은 같은 卷 p.6에 보인다. 「四道吟」의 原文은 “天道는 消長이 있고, 地道는 險夷가 있으며, 人道는 興廢가 있고, 物道는 盛衰가 있다. 興廢는 다른 세대가 있고, 盛衰는 서로 다른 시대가 있으니, 사람이 어떻게 이를 감당 하리요. 기쁨과 슬픔만 많을 따름이네”라고 되어 있다. 이 시야말로 哲理詩의 본색이다.

퇴계는 해동시인이지만, 또 嘉靖과 隆慶 간의 擬古의 기풍이 왕성할 때 태어났다. 이에 앞서 李夢陽은 “대저 문장과 글씨는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은 古帖을 모방하여 임서하면서는 그다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글씨에 뛰어나다고 하는데, 어찌 유독 문장에 있어서만 스스로 일가의 문호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하였다.<sup>17)</sup> 문장에 있어서도 이와 같으니 시에 있어서도 그러하였다. 葉燮은 『原詩』에서 당시의 시풍을 “시를 짓는 이들은 모두들 嘉靖과 隆慶의 七子の 詩學을 으뜸으로 삼았으니, 七子の 詩學은 오언고시는 반드시 漢·魏를 본받아야 하며 칠언고시 및 다른 여러 詩體는 반드시 盛唐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sup>18)</sup>고 하였다. 이는 퇴계가 걸어갔던 길이 嘉靖·隆慶의 여러 諸子를 쫓아가서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란 말인가! 퇴계의 각 문집에 들어 있는 시들을 두루 살펴보고서 그가 존경했던 詩翁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각 詩家들이 지은 韻文인 詩歌 중에서 어떤 사람을 가장 많이 모방하였는가를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퇴계가 스승으로 삼았던 이가 주희였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는데, 퇴계의 문집에는 회암을 답습하거나 회암이 사용한 韻을 사용한 시들이 적지 않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달리 다른 것을 구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퇴계가 盛唐 이전의 시인에 대해 和詩를 한 것은 도연명의 「移居」와 「飲酒」 등 약간 수에 불과하다. 唐人 중에서 盛唐 시인으로는 오직 두보 뿐이며, 中唐代에는 한유와 백거이 시에 각각 약간 수를 화운하였으며, 劉禹錫이나 柳宗元 등은 겨우 명백만 유지할 뿐이었다.<sup>19)</sup> 송대에 있어서는 理學大家인 소옹과 주희 이외에 동파

17) 「再與何氏書」는 『李空同全集』 卷61에 수록되어 있다.

18) 外篇 上에 나온다.

19) 생각건대, 韓愈·柳宗元·劉禹錫·白居易 四家は 모두 같은 시대 사람으로 韓愈의 나이가 조금 많고, 기타 三家는 서로의 차이가 5살을 넘지 않는다. 退溪가 韓愈의 詩에 和答한 시가 비교적 중요하고, 白樂天의 詩에 和答한 것은 조금 적고, 劉禹錫과 柳宗元에 있어서는 취할 것이 많지 않은 듯하다. 단지 文集 卷5의 「近觀柳子厚劉夢得以學書相贈答諸詩戲笑中猶有相勸勉之意令白頭翁不禁操觚弄墨之興各取其末一絕次韻奉呈彥遇」 두 수(全書 第1冊, p.152)에 그칠 뿐

에 和韻한 것이 비교적 많고, 구양수와 소자유(轍) 또한 각각 한 수 씩을 접하고 있다. 이에 준해 볼 때, 우리들은 실로 퇴계가 嘉靖과 隆慶의 여러 시인들과 같이 한 때의 견해에만 완전히 갇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는 또한 퇴계가 古人들을 비록 마음으로 따르고 손으로 좇았으나, 달리 자신의 慧眼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물결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자들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퇴계의 여러 시들 중에 和韻을 한 것 이외에도 사실상 韻을 밟지 않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비교해 보면 마치 대개는 古人과 더불어 진심으로 서로 화답하는 것 같다. 예를 들어 「樂時」라는 오언절구에서는 “安樂窩의 백 편 시를 길게 읊조리네”(文集 卷3, 全書 第1冊, p.99)라고 하였는데, 이 백 편은 邵康節의 「首尾吟」 백여 편을 말하는 것이다. 「자궐(煮蕨)」 시에서는 “소동파의 조롱에 나는 이미 부끄럼이 많았네”(全書 第1冊, p.110)라고 하고 있고, 「십삼 일 예천에 당도하여 두 번째 사직소를 올리고 명을 기다리다 신음하는 나머지 마루 위를 보니 기유년에 지나면서 지은 줄고가 있으므로 느낌이 있어 절구 두 수를 짓다(十三抵醴泉再辭待命呻吟之餘見軒有己酉經行拙句有感二絕)」의 둘째 수에서는 “두보가 楚江의 마름 먹는 일 어찌 마다하였으리”(文集 卷4, 全書 第1冊, p.132)<sup>20)</sup>라고 하였고, 「동짓날 느낀 것이 있어서 시 세 수를 짓다(至日有感三首)」 중의 셋째 수에서는 “두보는 삼 년째 초나라 땅 밑의 우레 소리 듣는 것 슬퍼했는데”(別集 卷1, 全書 第2冊, p.533)<sup>21)</sup>라고 하였으니, 이러한 것들은 모두 造句와 構思에서 이미 시공의 구속을 타파한 것이었다. 또한 자신의 시 중간 중간에다 注를 더하여 그 출처를 분명히 밝히거나, 혹은 古人의 句를 인용하여 자신의 회포를

이다.

- 20) 杜甫의 「奉酬薛十二丈判官見贈」, 마지막 구는 “영화는 젊었을 때 귀하니, 어찌 楚江의 마름을 먹고 있으리(榮華貴少壯, 豈食楚江萍)”라 되어 있다.
- 21) 杜甫의 「秋日荊南述懷三十韻」에는 “戀巴가 술을 뿜던 불을 아홉 번 비벼내어, 楚人이 제사하는데 우레 세 번 칩거하도다(九鑽巴噴火, 三蟄楚祠雷)”라는 句가 있다.

펼쳐 보이기도 하였다. 注를 더하여 출처를 밝힌 것은 文集 卷3의 「여러 친구들에게 보이다(示諸友)」(全書 第1冊, p.116)라는 시가 있다.

臥雲庵 속에서는 存心하는 법이 있다면,  
觀善齋 안에서는 일용하는 공부 뿐이로세.  
결속하는 곳 밝혀 낼 줄 알아야만 되는 것이니,  
부디 실천으로 옮겨 내 몸으로 징험하려네.

생각컨대 위의 시에 나오는 세 가지 전고는 모두 주자의 문장에서 따온 것인데, 퇴계는 詩句의 끝에 스스로 주를 달아 “臥雲庵은 「語類」의 膝德粹를 훈계한 곳에 보이고, 觀善齋는 「武夷精舍詩」에 보이며, 講明과 踐履라는 말은 「答程允夫書」에 보인다.”라고 하였다. 別集 卷1의 「한가히 거하며. 조사경(목)과 구경서(봉령)와 김순거(팔원)와 권경수(대기)가 서로 화창 수답한 시의 각운자에 맞추어서(閒居次趙士敬(穆)具景瑞(鳳齡)金舜舉(八元)權景受(大器)相唱酬韻)」(辛亥, 1551 全書 第2冊, p.520)의 둘째 수에서는 스스로 주를 달아 “주자의 편지에 ‘무리를 벗어나 혼자 공부하면 사람을 둔하게 하고 막히게 하기 쉬우니 매우 두려워 할 만하다.’”고 하고 있다. 文集 卷5의 「김신중에게 받들어 수답할 詠梅詩 절구 세 수와 근체시 한 수(奉酬金愼仲詠梅三絕句一近體)」(全書 第1冊, p.142) 시에서 퇴계는 마지막 한 수의 오언율시에 긴 주를 덧붙여 “朱선생이 일찍이 소동파가 읊은 「松風亭梅花詩」에 화답하여 ‘매화가 저절로 삼첩곡에 들어오네’라는 구를 지었는데, 대개 동파의 시가 세 편에다 선생이 세 편을 화답하여 도합 여섯 편이 된다. 편마다 모두 신선의 풍격과 도인의 운치가 배어 있어, 매양 한 번씩 읊으면 사람으로 하여금 몸이 훨훨 날아 구름을 오르고 싶은 기개가 생기도록 하여준다...”라고 하였다. 別集 卷1에 있는 「오월 그믐날 영천에서 여름 과거를 치러 온 여러 선비들에게 시험을 치르고, 쌍청당에서 즉흥적으로 짓다(五月晦日榮川試夏課諸生雙淸堂卽事)」라는 오언율시(全書 第2冊, p.516)의 마지막 구에는 “동파의 「試院煎茶詩」에는 ‘계의 눈이 이

미 사라지고 물고기의 눈이 생겨나고 있네'라는 구절이 있다.”고 주를 달아 두었다. 續集 卷1의 「동암에서 뜻을 말하다(東巖言志)」라는 칠언 율시 한 수(全書 第3冊, p.29) 마지막에는 邵康節의 시 두 구를 인용하여 스스로 주를 달고 있는 것 등은 모두 그러한 예들이다.

和詩는 짓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漢詩라는 舊體를 학습해 본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개 화시는 반드시 韻이 한정되어 있으며 또한 韻은 반드시 글자까지 한정되어 있으므로 한 수의 시 속에서 운용할 수 있는 韻字는 다시 각각 그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야 하지 단순히 韻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고수가 아니라면 原詩의 情韻에 의기투합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체제와 형식에 구속되는 바 있으므로 그 뛰어나고 묘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평범한 일반적인 시인들을 두고 하는 말일 뿐이며, 예술적인 조예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 속에서 추구하여야 하므로, 그 지극한 것에 미쳐서는 또 규칙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전히 규범 중에서 활동하며, 법도를 잃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의 구애를 받지 않는 것이다. 이 고명한 점이 바로 속된 기타의 여러 시인들보다 더 뛰어난 까닭이다. 嘉靖과 隆慶의 여러 군자들은 모의를 좋아하였고 퇴계 또한 모의를 잘 했었지만, 또한 嘉靖과 隆慶 때의 여러 시인들의 함정에 떨어지지 않았으니, 이는 퇴계 각 편의 창작 성취로써 분석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세한 모습을 통찰할 수 없다. 여기서 다른 시인들의 韻에 화답한 퇴계시 두 수를 보기로 하자.

문집 卷1에 「군의 서재에서 소백산을 구경할 생각이 있어 경유가 한 창려의 衡嶽시의 운을 사용한 시를 차운하다(郡齋有懷小白之遊追次景遊用昌黎衡嶽詩韻)」의 한 편(全書 第1冊, p.68)은 대체로 한유의 「형악묘를 참배하고 마침내 형악의 절에 묵으면서 문루에 지어 남기다(謁衡嶽廟遂宿嶽寺題門樓)」라는 칠언고시에 和韻한 것이다. 衡嶽은 南嶽인 衡山이며, 小白 역시 산 이름이다. 퇴계는 嘉靖 기유(1549) 4월에 소백산에 놀러 갔다가 5월에 다시 『遊小白山錄』이란 책을 지었는데 이는

문집 卷41(全書 第2冊, pp.342~345)에 실려 있다. 이 시는 한유가 형악에 놀러 갔던 것으로 韻을 한 한유의 시로서 소백산에 놀러 간 것을 기념하고 있으니, 진실로 제목으로 삼은 뜻에는 넉넉한 마음이 있다. 화시에서의 用韻은 원작과 같아야 하는 것은 이치상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同韻의 구가 어휘 또한 원작과 같은 것 같으면 이는 도끼로 자른 모방의 흔적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유 시의 일곱째 구는 “내가 와서 마침 가을비 내리는 절기를 만나(我來正逢秋雨節)”라고 되어 있는데, ‘我’자는 韻에 적절한 곳이 아니나 퇴계는 “내 지금 원님되어 이 땅을 맡았는데(我叨郡紱守茲土)”라고 하여 ‘我’자를 거듭 쓰고 있다. 열째 구의 원작은 “어찌 정직하면서도 감응하여 통할 수 없으리요(豈非正直能感通)”라고 되어 있는데, 퇴계는 “밤마다 깊은 꿈이 정령과 통하는구나(幽夢夜夜精靈通)”라고 하여 서술하고 있는 일이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느껴서 안다는 의미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니 오직 ‘通’자가 協韻이 되는 곳이다. 이 시의 후반에 이르러 퇴계는 형악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노출시키면서 ‘臃’자 韻에 압운할 때에는 한유 시의 “臃臃”이란 두 글자를 그대로 複詞로 사용함으로써 또한 “續韓”이라는 명칭을 듣게 되었다. 이는 한유의 시에 和韻한 이 시가 대체로 그 用意는 韓文公을 경양하는 작품이므로 간혹 그 어휘를 다듬고 문구를 만드는 면에 있어서의 장점을 보여 주기에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두보의 「幽人」이란 시에 和韻한 아래의 시는 「형악」에 和韻한 시보다 훨씬 더 나아 그 격조의 高古함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두보의 원시는 다음과 같다.

외로운 구름도 무리 지어 노닐며,  
 신령스런 사물도 돌아갈 곳이 있네.  
 기린과 봉황이 붉은 하늘에 있으니,  
 언제나 한 번 와서 위용을 보이려나.  
 옛날에 惠昭와 荀珣 무리와 함께,  
 중년에는 은거하여 살기를 기약하였네.

하늘은 높기만 한데 소식은 없으니,  
 나를 내버려두고 홀연히 잊은 듯하네.  
 나는 두려워하네, 도를 함께 할 무리 아니라 여겨,  
 은거하는 이들이 나의 허물을 보았을까 하는 것을.  
 넓은 물결에 웃음이며 말을 그윽히 하여,  
 봉래산 신선 못에서 노를 두드리며 노니네.  
 높다란 扶桑에 떠 오른 해는,  
 산호 나뭇가지에 밝게 비치네.  
 바람맞은 돛은 비취 장신한 덮개에 기대어 있고,  
 저녁에는 동방 靑帝인 東皇太一의 옷을 잡네.  
 입의 옥같은 元和津을 삼켜 양치질하니,  
 그리운 이는 놀같은 운무에 희미하게 가려 있네.  
 공명을 알더라도 일꾼기에 부족하니,  
 商山에서 芝草를 먹던 四皓도 움츠려 드네.  
 五湖에는 운무 또 넓기만 한데,  
 세모에 슬픔이 많기만 하네.<sup>22)</sup>

퇴계의 和韻詩는 문집 卷2(全書 第1冊, p.74)에 보인다.

깊숙이 사는 사람 어디에 있어,  
 온 세상 누구와 함께 돌아 갈거나.  
 숲 속이라 세속의 먼지 멀기도 하니,  
 홀로 서 있는 그 모습 의젓하기도 하구나.  
 향기로운 菡蘭으로 패물을 삼고,  
 계수나무 소나무로 마음을 다지네.  
 도의 요점 터득하고자 온갖 예를 다 써서,  
 초연히 몸과 자취를 내던졌구려.  
 날개가 달린 용은 변화가 신비롭고,  
 굳은 옥은 한 점의 티끌도 없구나.  
 이따금 하얀 난새를 타고,  
 하늘을 노닐어 瑤池로 가네.

22) 杜甫詩는 각 판본의 글자들이 때로 약간의 異同이 있다. 여기에 인용한 시는 『錢注杜詩』 卷3, 上冊, 北京, 1961, p.84에 의거하였다.

洴盤의 물에서 머리를 감고,  
 扶桑의 가지에서 해돋이 맞네.  
 돌아와서는 고요하게 하는 일 없이,  
 薜荔로 옷 만들고 놀로 밥을 짓네.  
 나는 바로 입 계신 곳을 찾아가서,  
 도를 물으며 玄微를 더듬어 보며,  
 소원은 불멸한다는 石體를 아끼지 말고,  
 정성들여 옥으로 된 芝蘭을 먹어 보는 것이라네.  
 천년 가도 즐거움은 남을 터인데.  
 한날 목숨 슬퍼하며 그리워하리.

이 和韻詩는 두보의 원시를 절차탁마하여 그 정신을 얻었다고 하겠다. 가장 가혹하다고 할 비평가에게 이 시를 평가하도록 하더라도 또한 반드시 무릎을 치며 탄복하고 칭찬할 것이다. 기타 퇴계가 지은 화운시는 도연명의 「飲酒」 20수에 화운한 것과 동파의 「月夜飲杏花下」에 네 번이나 화운한 시가 있는 등 이루 다 매거할 수 없으니 학자들이 마땅히 거듭 조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퇴계가 前人들의 시에 화답한 것 중 前代 현인들의 한 구 전체를 다 습용한 것으로는 주희의 시구를 사용한 “묘한 곳은 응당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깨달아야 하는 것이네”(「호남 사람 수재 변성온(자는 여운)이 나를 찾아와서 여러 날 머물다가 떠나기에 이별시 절구 다섯 수를 주다(湖南卞成溫秀才(字汝潤)來訪留數日而去贈別五絕)」의 넷째, 문집 卷3, 전서 第1冊, p.115)가 있고, “인간세상에 예와 지금 다르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네”(「상주에서 화답해 줄 시의 운에 차운하다(次尙州見和韻)」, 別集 卷1, 全書 第2冊, p.522)라는 것과, “멀리 옥 같은 사람에게 꺾어 보내면서 그리워한다”(「전날 정존의 편지 끝에…거의 매형을 위하여 조소의 해명이 될 것이다(前日靜存書末…庶幾爲梅兄解嘲也)」의 칠언절구의 둘째, 外集 卷1, 全書 第3冊, p.549)는 것 등이 있는데, 때로는 아랫 구에서 다시 그 내력을 지적해 낼 때도 있다. 그러나 어휘를 구사하는 기교로 말한다면 한 구 전체 구절을 끼워 넣은 것

이 반 구절을 끼워 넣는 것보다는 못하고, 반 구절을 끼워 넣는 것은 간혹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는 것만 못하기도 하다. 宋의 釋惠洪의 『冷齋夜話』 卷1에는 黃庭堅의 詩法을 서술하여 “黃山谷이 말하기를 ‘詩意는 무궁하나 사람의 재주는 유한하니, 유한한 재주로 무궁한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비록 도연명이나 두보라 하더라도 뛰어나기 어렵다. 그 뜻을 바꾸지 않으면서 그 어휘를 만들어 내는 것을 換骨法이라고 하고, 그 뜻을 모방하여 형용하는 것을 奪胎法이라 말한다’고 하였다.”고 하고 있다.<sup>23)</sup> 퇴계가 반 구절을 끼워 넣은 것이 이른바 脫胎法이라고 하는 것이다. 문집 卷3의 「성산 이자발은 호가 휴수인데 그가 신원량이 그런 십죽도에 제를 해 달라고 창하므로 절구 열 수를 짓다(星山李子發號休叟索題由元亮畫十竹十絕)」의 다섯째 수 「추순(抽筍)」(全書 第1冊, p. 121)은 다음과 같다.

바람과 우레 뒤에 어지러이 순이 돋으니,  
용이 날고 호랑이가 채는 기세라네.  
문 가리고 대나무 이루어지길 보고 있으니,  
나는 지금 두보를 배우는 것이라네.

단지 이 20자만을 분석하여서는 퇴계의 시가 두보를 학습하였다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다. 두보의 시인 「절구 세 수(三絕句)」의 셋째 수를 보면 “모름지기 지난 번에 대나무 이루어짐을 보리라 하였으나, 손님이 와도 마음을 쫓을 뿐 나아가 영접하지 않네”<sup>24)</sup>라고 되어 있는데, 이 ‘看成竹’ 세 자가 脫胎의 내력이다. 外集 卷1 「김유지 탁청정에 쓰라고 부치다(寄題金綵之濯淸亭)」(全書 第2冊, p.545)의 둘째 수 첫째 구에 “허허, 이 세상에 하나의 초정”이라 한 것 중에서 ‘乾坤一草亭’ 역시 두보의 「늦봄에 瀼西에서 새로 임대한 초가집에 쓴 다섯 수(暮春題

23) 『稗海』 第5函, 『津逮秘書』 第8集 등의 책에 실려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叢書集成·初編』을 활용할 수 있다.

24) 『錢注杜詩』 卷12, 前引, 下冊, p.406

灑西新賃草屋五首」 중 셋째 수의 한 구 전체를 옮겨온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실제로는 한 구 전체를 끼워 넣은 것이지만 퇴계는 두보의 오언을 자신의 칠언시 속에 끼워 넣음으로써 한 구의 반을 끼워 넣은 것으로 만들었다. 퇴계는 일찍이 친구 林大樹 등과 함께 作詩法을 변론하면서, 규율과 법도를 숭상하여 “스스로 시에 통달한 사람이 아니라면, 시의 법도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어찌 들을 수 있으랴, 크게 재덕을 갖춘 현명한 사람은, 법도를 쓰지 않고도 정밀한 시 짓는다는 말을. 어찌 조금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 힘들여 다듬고 법도에 맞추어 보려고”<sup>26)</sup> 라고도 하였는데, 우리들은 위와 같이 한 구를 그대로 사용하는 탈태법에 있어서도 퇴계는 스스로 유가의 법도를 따랐음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러한 도리에 있어서도 역시 정통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집 卷4에 「산에 살며 네 시절로 각기 네 수씩 읊어 모두 16절이 되다(山居四時各四吟共十六絶)」의 셋째 수 「저녁(暮)」의 마지막 구인 “저녁 이슬에 옷이 젖어도 소원은 어기지 않았으면”(全書 第1冊, p.129)은 아마도 도연명의 「歸園田居」 5수 중의 셋째 수에 나오는 두 구절 “옷이 야 젖은들 대수라만은, 다만 소원만은 어기지 말아 주었으면(夜露不足惜, 但使願無違)”을 자기 것으로 바꾼 것이다. 도연명의 시는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서 간혹 퇴계가 단련한 시구를 좋다고 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이도 있겠으나, 그가 靖節(도연명)을 앙모했었던 은근한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다.

漢代 이후로부터 시에는 用典을 많이 사용하였고, 그리고 오·칠언 율시의 엄정한 對仗은 시인과 독자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도리에 맞는 것이라고 하였다. 퇴계는 用典을 능숙하게 사용하였으니, “피라미는 제 즐거움을 제가 알겠지”(「石潭曲」), “邯鄲에서는 여전히 단꿈을 꾸고 있는데, 蠻觸은 몇 번이나 싸움 겪었나”(「秋懷十一首讀王梅溪和韓詩有感仍用其韻」 其十), “우물가에 벌레 먹은 오얏을 따러 가지는 않겠네”

25) 위의 책, 卷14, 下冊, p.486

26) 「임대수가 찾아와 시에 대해 논함을 기뻐하며(喜林大樹見訪論詩)」, 別集 卷1, 全書 第2冊, p.529를 보라.

(「林居十五詠·初夏」), “곰 발바닥과 물고기 중 어느 것이 맛 좋은 지를 알게 되리. 한스럽다 산 마을에 유익한 벗 없으니”(「和子中閑居二十詠·講學」), “박달나무 베는 물가에서 물 노래를 부른다네”(「次韻答友人二節」), “물을 즐겨 하여 지에만 치우쳤다 말을 하지 마오”(「偶題」) 등은 全書 第1冊에 보이는 것으로, 모두 문집의 앞 세 권에서만 가려 뽑은 것이다. 이러한 典故는 비교적 보편적인 것으로, 독서인이려면 대체로 다 알고 있으며 출전을 찾는 것도 쉽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음의 예들은 역사적인 사건 속에 나타난 人名을 끼워 넣음으로써 한 때의 필요에 응한 것이다. 문집 卷2의 「황이 장차 농암을 임강사에서 뵈올 작정이었는데, 그 밤에 눈이 내렸다. 선생은 아침에 스님을 보내어 절구 한 수로써 부르므로 삼가 받들어 화답하여 먼저 올리다(淸將拜龕巖於臨江寺其夜有雪先生朝遣僧以一絕速之謹奉和先以呈上)」란 絕句(全書 第1冊, p.79)에서 袁安이 눈에 누운 일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원래 『後漢書·安傳』 章懷太子의 注에서 『汝南先賢傳』을 인용한 것에 나오는 것이다. 같은 卷 「지중추 농암 이선생 만사 두수(知中樞龕巖李先生挽詞二首)」 중의 둘째 수(全書 第1冊, p.87)에서는 또 “양담의 끊임없는 구슬픈 눈물이 있으니, 어찌 차마 서문을 지난 단 말인가”라고 한 구가 있는데, 이는 『晉書·謝安傳』에서 생질 羊曇이 謝安을 위해 곡을 한 일을 서술한 것이다. 別集 卷1 「계진에게 답하다(答季珍)」의 셋째 수(全書 第2冊, p.518)에는 范式과 張劭가 닭 잡고 기장밥을 했다는 『後漢書·獨行傳』에 나오는 고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전고는 후세에도 상식화된 것이어서 모두 다 僻典은 아니다. 퇴계가 사용한 用典 중에서 조금 궁벽하지만 또한 상고할 수 있는 것은 문집 卷2의 「유탄(有嘆)」(全書 第1冊, p.76)이란 시에서 “謝上蔡의 명리의 관문을 뚫어 가야 한다는 것이 정이천을 섬긴 이유라면, 胡憲의 마음 공부 涪陵의 譙天授를 좇아 밝혔다고”라는 한 구인데, 謝는 謝良佐를 가리키고 胡는 胡憲을 가리킨다.<sup>27)</sup> 사상채는 程顥의 문인이

27) 胡憲에 관한 일은 『宋史』 卷459와 『宋元學案』 卷43을 참고하라.

기 때문에 시에서 “洛을 섬기다”라고 하였고, 호적계는 일찍이 涪陵의 譙天授(定)를 따르며 『역경』을 익혔기 때문에 “涪를 쫓았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전고는 이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이 없는 자들이 읽었을 때에는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을 듯하다. 같은 卷의 「조송강으로부터 보내 온 시에 차운한 열두 수(次韻趙松岡見寄十二首)」 중의 셋째 수(같은 책, p.84)에는 “고요함 속에 『주역』의 이치 살피어 보고, 雖旬(비록 균등하나)이란 찬사에 깊이 느꼈네”라는 구가 있는데, “雖旬”이란 말은 『周易·豐卦·初九』에 나오는 어휘로 일반적인 독자들은 간혹 그 뜻이 어떠한 지를 알기 어렵다. 다음과 같은 기타의 것, 滕六이 눈의 神을 이른다는 것(「십일월에 청량산에 들어가다(十一月入淸涼山)」), 같은 권, 같은 책, p.88)과, 沈材가 沈香가루를 가리킨다는 것(「분향(焚香)」, 卷3, 같은 책, p.109) 등은 혹 僻典이거나 혹은 故實을 알 수 없는 것들이다. 卷3의 「초려삼고(草廬三顧)」라는 칠언절구 한 수(같은 책, p.119)는 본래 제갈량의 일을 읊고 있지만, 첫 구에서 “삼고초려의 예우는 湯임금이 伊尹을 세 번 방문한 것보다 진지하여”라고 하여, 劉備가 세 번이나 찾아가 예를 지켰던 것이 商의 湯이 有莘을 방문한 것보다 더욱 근엄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旬는 자못 拗體를 사용하여 퇴계의 다른 시에 보이는 平順함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퇴계시에 사용된 用典 중에는 여러 가지가 매우 자연스럽게 뒤섞여 마치 전고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 것이 있으니 여기에서 그의 詩學의 功力을 볼 수 있다. 문집 卷3 「정자 정자중에게 부치다(寄鄭子中正字)」(全書 第1冊, p.108)의 頷聯은 다음과 같다.

실천궁행은 흡사 배가 익어서 달아짐과 같고,  
모리는 묻혀 있는 불을 뒤져내는 것과 한가지라네.

두 구는 언뜻 보면 마치 典故를 사용하지 않은 듯하지만, 사실 윗구는 『주자어류』에 나오는 것이며, 아래 구는 百丈大智禪師가 滄山에게 화로를 뒤져보라고 한 일을 사용한 것으로 典故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

다.<sup>28)</sup> 卷2의 「조진사 사경에게 화답한 다섯 수(和趙上舍士敬五首)」라는 절구의 넷째 수(全書 같은 책, p.95)는 다음과 같다.

온 누리 모두 깜깜하니 누구와 함께 맑고 밝음을 보리,  
파리 모기 뿡뿡거리며 우레 소리 일으키는데.

‘輩’字는 판각의 잘못이므로 마땅히 ‘輩’이어야 한다. 『禮記·內則』\*에서는 “儒子에게는 다음과 같은 주거가 있습니다. 一畝의 담장과 사방 길이가 一堵인 협소한 방과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가시나무나 대나무 등으로 엮은 사립문과 쪽으로 엮어 만든 문과 깨진 항아리 주둥이로 만든 창을 지니고 있습니다”라고 하여, 그 생활 조건의 누추함에도 오히려 스스로의 지킬 바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圭窰는 圭玉 형상의 위는 둥글고 아래는 네모난 옆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簾門은 사립문을 이야기한다. 퇴계가 말한 ‘圭窰’은 簾門과 圭窰를 뜻하는 것으로 그 거처의 소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sup>29)</sup> 『詩經·召南』 「殷其雷」에서의 殷殷은 우레 소리로, 이는 또 파리와 모기가 문을 오가며 우레와 같이 뿡뿡거리는 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八表同昏’이라는 구는 바로 도연명의 「停雲」이란 시에 나오는 말이다. 두 구에 이미 세 가지 전고를 사용하였고, 그 용법이 지극히 꾸밈없고 자연스러워 마치 기력을 전혀 쓰지 않은 듯하여, 보통의 독자들도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므로, 典故의 운용이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러야 비로소 그 신묘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用典의 윤키와 정감이 함께 고고한 것으로 말하자면, 나는 일찍이 퇴계의 「산에 노닐며 만나는 대로 쓴 열두 수(遊山書事十二首)」

28) 釋道原의 『景德傳燈錄』 卷9를 참고하라. \*『禮記·內則』으로 되어 있으나, 원전을 찾아보면 『禮記·儒行』에 실려 있다.

29) 圭窰는 또한 圭竇로도 통한다. 卷3의 「記夢二絶」, 첫째 수 (全書 第1冊, p.100)와 卷4 「追次洪大提退之見寄韻二首」의 둘째 수(全書 第1冊, p.135)에서는 모두 圭竇라고 쓰고 있다.

중의 「집에 돌아오다(還家)」라는 한 수를(文集 卷2, 全書 第1冊, p.89) 더욱 칭찬하고 싶다.

산에 노니는 것에 무슨 얻을 것이 있는가?  
 농사꾼이 가을에 수확하는 것과 똑 같지.  
 거처하던 옛날의 서실에 돌아 와서,  
 고요히 향 연기를 대하고 있노라.  
 오히려 산 사람이 될 수도 있음은,  
 다행스럽게도 진세의 근심이 없다는 것이네.

이것 또한 표면적으로 말하자면, 보기만 하여서는 마치 전고를 전혀 쓰지 않은 듯하다. 『書經·盤庚上』에는 반경의 “농사를 지움에 밭에 가서 힘써 심어야 또한 가을에 거두는 것이 있느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는 이 시의 둘째 구에 쓰인 가장 빠른 출전일 것이다. 한시에 쓰인 전고의 묘함은 가장 으뜸이 자연스러운 것으로서 이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전고를 사용하되 마치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듯하여 거의 백거이 시와 같이 노파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또한 雅正함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 다음은 용전을 쓰더라도 마땅히 가장 빠른 것을 사용하여 여러 용전에 있어서의 선조를 잇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위의 시에 쓰인 한 구절은 이상의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시 중에서도 빼어난 것이라 하겠다.

퇴계는 對仗에 있어서도 일찍이 虛字로 句의 마지막에 押韻을 하여, 자못 기이한 흥취에 이르렀다. 문집 卷1 「팔월 보름날 밤에 읊다(八月十五日夜吟)」(全書 第1冊, p.69)의 頸聯과 같은 것이다.

사시사철 누가 할 일 없는 자가 되려는지,  
 못 벌레들 다투어 불평을 호소하네.

‘者’와 ‘如’는 모두 虛詞로 對를 하였다. 윗구에서 居者는 누구나 일이 없다고 하고, 아래 구에서는 여러 곤충들이 불평을 호소하는 듯하다

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無事者라는 단어는 오늘날의 문법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의 名詞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휘의 뒤섞임이 이와 같으니 調理와 흥취가 비로소 마음에 흡족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율격에 어긋나지 않는다. 虛字는 본래 항상 쓰지 않는 것이나, 여기에서는 그 기묘함을 잘 발휘하고 있으니, 진부한 것을 신기한 것으로 변화시킨 것이라 하겠다.

#### IV.

퇴계의 여러 문집에 실린 시편 중에는 아름다운 시들이 매우 많아 작은 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 어려울 듯하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늘 잊기 어려운 것은 오언절구인 속집 卷1의 「문경 경운루의 서쪽 누각은…(聞慶慶雲樓西閣…)」(全書 第3冊, p.20)과 별집 卷1 「그림의 제목으로 여덟 수의 절구를 짓다(題畫八絶)」 중의 「원숭이(獼猴)」(全書 第2冊, p.533)와 칠언절구인 속집 卷1 「갑진년 늦여름에 병으로 사헌부의 일을 그만두고…(甲辰(1544)季夏病解臺務…)」(全書 第3冊, p.24)와 칠언율시인 문집 卷3의 「도산에서 뜻을 말하다(陶山言志)」(全書 第1冊, p.114)와 오언고시인 속집 卷1의 「가을밤에 바람이 몹시 불고 소낙비가 내려서 느낌이 있다(秋夜疾風驟雨有感)」(全書 第3冊, p.19)와 같은 것들은 모두 홀로 자리를 압도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시들은 당·송대 명인들의 문집에 넣어 두더라도 여전히 극히 뛰어난 것으로 추천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다면 내가 퇴계의 非哲理詩를 보았을 때 과연 어떤 것들이 조예의 지극한 경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 아래 퇴계의 시 세 수를 함께 감상해 보기로 하자. 하나는 외집 卷1에 실려 있는 「웅사의 시 두루 말이에 쓰다(題雄師詩卷)」(全書 第2冊, p.557)라는 칠언절구이다.

한가히 지내는 이월에 풍광이 좋아,  
 시냇가 푸른 산에 두견화가 피려 하네.  
 문노라, 선방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천 봉 그림자 속에 푸른 안개 자욱하네.

나는 이것이 소리로 듣고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도달할 수 있는 근본이라고 말한다. 문집 卷5 「먼 숲의 하얀 안개(遠林白烟)」라는 시는 (全書 第1冊, p.160) 다음과 같다.

긴 수풀 아득 아득 먼 마을을 곁에 두었는데,  
 바람이 일어나자 하늘의 울림은 아득하여 들리지 않네.  
 태평이란 형상이 없는 것이라 말을 하지 마오,  
 한 가닥 아침 안개를 눈 여겨 바라본다면.

이 시는 흡사 菩薩戒를 받는 것 같이, 하고 싶은 바를 씻어 내고 모든 것을 쓸어 내어도 여전히 말로는 다할 수 없는 것이 있는 듯하다. 남송말 胡應麟의 『困學紀聞』 卷18에는 “司空表聖은 ‘戴容州가 詩歌의 정경은 “남전에 햇빛이 따듯하고, 좋은 옥에서 연기가 피어나네”와도 같은 것이어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눈앞에다 둘 수는 없는 것이다. 李義山의 “옥에서 연기가 피어난다”라는 구절은 아마도 여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다. 戴容州는 바로 戴叔倫으로 蕭穎士의 문인이며 『新唐書』 卷143에 전기가 있다. 그의 이야기는 이러한 경계와 흡사한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으나 그 구체적인 것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다. 『퇴계문집』 卷3 「도산잡영(陶山雜詠)」의 「절구 이십 육 수(二十六絶)」와 「설경(雪徑)」, 한 수(全書 第1冊, p.106)는 더욱 뛰어난 하나의 경계를 열어젖혔다.

한 가닥 오솔길이 강을 끼고 있는데,  
 높다 낮다 끊겼다 다시 감도네.  
 눈이 쌓여 사람 자취 전혀 없는데,

뜯구름 저 밖에서 중이 오고 있네.

이는 참으로 德人の 음이며 부드러운 仁者의 마음이어서 두 번째 경지인 ‘義’까지는 더 이상 가지 않는 것이다. 남송의 嚴滄浪(羽)은 “대저 시는 別材가 있어서 책과는 관계가 없으며, 시는 別趣가 있어서 이치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독서를 많이 하지 않고 공리를 많이 하지 않으면 그 지극함에 미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滄浪詩話』 卷1) 조선의 시인 퇴계는 독서를 많이 하고 공리를 많이 한 사람으로 창량이 “理의 길에 빠지지 않고 말의 통발에 걸리지도 않은 것이 뛰어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경계, 바로 여기에 있는 듯하다.

(우 재 호 譯)